

## 미중 경쟁의 규범적 측면: 신장의 사례

조한울 (성균관대)

### 1. 서론

미국은 2021년 1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연설을 통해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대량 학살(genocide)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sup>1</sup> 이러한 높은 강도의 공개적인 비난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입장을 고수했던 미국의 중국 관여(engagement) 정책에서 벗어난 행보이다.<sup>2</sup> 트럼프 행정부부터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처벌하려는 미국의 상당한 노력이 있어왔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미 의회와 워싱턴의 외교 정책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sup>3</sup>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전 행정부가 선언한 대량 학살에 대한 지정을 인정하며, 중국에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할 것을 약속하였다.<sup>4</sup>

전략적 경쟁 (strategic competition) 시대에 미국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적, 경제적 문제가 강대국 경쟁 담론을 지배해왔으나,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전개되면서, 미중 경쟁에서 인권이라는 규범 문제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학술 논문은 새롭게 드러나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미중 관계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며, 신장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미중 경쟁의 규범적 측면을 강조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물질과 규범, 전략과 도덕이라는 이분법적 이해에서 벗어난다. 신장 인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인권에 대한 규범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의 대중 정책에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 정부에게 인권 문제는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하려는 성격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본 학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연구의 주요 개념과 사례의 범위를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를 설정한다. 규범과 인권이란 무엇이며,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 개념들에 접근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신장 사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사례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liberal internationalism) 학술 논의를 검토하여,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미국의

---

<sup>1</sup> Robbie Gramer and Amy Mackinson, "Pompeo Declares China's Crackdown on Uighurs 'Genocide'," *Foreign policy*, January 19,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19/pompeo-declares-china-crackdown-uighurs-genocide-biden-beijing-xinjiang-crimes-against-humanity-trump-final-foreign-policy-move/>.

<sup>2</sup> Kurt Campbell and Jake Sullivan,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Foreign Affairs* 98, no.5 (September/October 2019): 96, 109.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competition-with-china-without-catastrophe>.

<sup>3</sup> Michael J. Green, "Biden Makes His First Bold Move on Asia," *Foreign Policy*, January 13,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13/kurt-campbell-biden-asia-china-appointment/>.

<sup>4</sup> Charlie Campbell, "In His Speech to Congress, Joe Biden Sets Out a Vision for 'Competition, Not Conflict' With China," *Time*, April 29, 2021, <https://time.com/5995109/biden-congress-speech-china/>.

대중인권정책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지 분석한다. 셋째, 미중 경쟁의 규범적 측면을 신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넷째, 신장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중 정책에 어떠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 2.1 규범과 인권

본 논문은 국제법을 기준으로 신장 인권 문제의 규범적 의미를 판단한다. 규범이란 넓은 의미로 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즉, “행동의 기준 (standards of behavior)”이 되는 것이다.<sup>6</sup>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정치적, 법적, 사회적 탄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가치적 규범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등 여러 권리들을 포함한다.<sup>7</sup>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인권을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지만, 인권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으로 보편성 대 상대성, 권리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첨예한 입장들이 존재한다.<sup>8</sup> 이런 점에서 인권은 일종의 신념 체계인 이데올로기로 정의되기도 한다.<sup>9</sup>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은 현존하는 질서에서 지켜야 할 명확한 도덕적 경계를 보여주면서도, 인권 증진에 대한 미래의 비전과 변화를 논한다.<sup>10</sup> 세계 인권 선언 또한 인권을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의 공통된 성취 기준”이라고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면과 이데올로기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준다.<sup>11</sup>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도덕적 판단과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분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권을 논쟁적인 도덕적 권리 문제나 이데올로기로 접근하지 않는다. 대신, 국제법적 차원에서 신장 인권 문제의 의미를 판단한 후, 이 문제가 미중경쟁에서 지닌 다차원적 영향력과 전략적 의의를 분석한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비교하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국제법이 신장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규정하는지가 논의의 기준이 된다.

### 2.2 신장 사례의 특수성과 연구 범위

중국의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 중 신장의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장의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

<sup>5</sup>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 no. 4 (1998): 891, <http://www.jstor.org/stable/2601361>.

<sup>6</sup> Ann Florini,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 no. 3 (1996): 363, <https://doi.org/10.2307/2600716>.

<sup>7</sup> “Human Right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last modified April 11, 2019, <https://plato.stanford.edu/entries/rights-human/>.

<sup>8</sup> Stanford, “Human Rights.”

<sup>9</sup> Zehra Arat and F. Kabasakal, “Human Rights Ideology and Dimensions of Power: A Radical Approach to the State, Property, and Discrimination,” *Human Rights Quarterly* 30, no. 4 (2008): 907-909, <http://www.jstor.org/stable/20486716>.

<sup>10</sup> Lea David, “Human Rights as an Ideology? Obstacles and Benefits,” *Critical Sociology* 46, no. 1 (January 2020): 44-46, <https://doi.org/10.1177/0896920518798015>.

<sup>11</sup>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accessed 10 June, 2021,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강하게 드러나는 홍콩과 대만의 민주주의 문제와는 차별성을 둔다. 중국의 신장 정책은 신장 인구의 약 51 퍼센트를 차지하는 튀르크계 무슬림 위구르인(a Turkic ethnic group)을 표적으로 한다.<sup>12</sup> 즉, 신장의 인권 문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위구르 문화와 위구르 민족의 존재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 이는 중국의 주요 신장 정책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인을 대상으로 대량 구금(mass detentions)을 통해 사상 통제를 하고, 강제적 불임 및 낙태(forced sterilization and coerced abortions)을 추진해왔다.<sup>13</sup> 둘째, 국제법 차원에서 민족에 대한 문화적 또는 존재적 말살 시도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학살(genocide)로 규정될 수 있다.<sup>14</sup>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정책과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반테러정책(counterterrorism)을 명분으로 무슬림을 핍박한다는 점에서 티벳 문제와 구분된다.<sup>15</sup> 넷째, 미국이 대량 학살이라고 선언한 많지 않은 사례의 하나라는 점에서 신장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신장 핍박 정책이 시진핑 집권 이후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여러 관련 정책들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심에 비해 신장 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장 사례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신장 사례 연구 범위는 2014 년부터 2021 년이다. 특히, 미국의 강경한 정책적 대응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9 년부터 2021 년 사이가 미중경쟁의 맥락에서 집중 조명 된다. 첫째, 미국은 2019 년부터 위구르인 강제 구금이나 노동과 연관된 일부 중국 관리나 법인에 대해 비자, 경제, 무역 제재 및 제한을 실시하였다.<sup>16</sup> 둘째, 2010 년대 중국의 국내 안보와 관련된 지출은 국가 안보에 대한 지출을 초과한다.<sup>17</sup> 당의 통치에 위협적이지 않은 선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용인해준 후진타오와 달리, 시진핑은 2013 년 집권 이후, “사회에 대한 정당 통제 강화 (the reassertion of party control over society)”를 추진해왔다.<sup>18</sup> 중국의 위구르인 탄압은 2014 년 ‘테러와의 인민 전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6 년에 탄압의 정도가 심화되었다.<sup>19</sup> 2017 년부터 신장 당국은 본격적으로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수용(mass internment)을 시작하였다.<sup>20</sup> 2020 년 9 월 시진핑은 증가하는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장의 소수 민족

<sup>12</sup> Thomas Lum and Michael A. Weber, “Human Rights in China and U.S. Policy: Issues for the 117th Congress,” CRS (March 31, 2021): 2,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6750>.

<sup>13</sup> Lum and Weber, “Human Rights,” 13–14

<sup>14</sup> Lum and Weber, “Human Rights,” 33–34

<sup>15</sup> Lum and Weber, “Human Rights,” 5, 6, 13, 14

<sup>16</sup> Lum and Weber, “Human Rights,” 1, 7, 32

<sup>17</sup> James Leibold and Adrian Zenz, “Beijing’s Eyes and Ears Grow Sharper in Xinjiang,” *Foreign Affairs*, December 23, 2016,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6-12-23/beijings-eyes-and-ears-grow-sharper-xinjiang>.

<sup>18</sup> Lum and Weber, “Human Rights,” 2

<sup>19</sup> Shepherd, Christian. 2020. “China’s crackdown on the Uighurs.” *Financial Times*, October 19, 2020. <https://www.ft.com/content/6cceb0c1-dc43-48a4-81cc-2debcac0148a>.

<sup>20</sup> Thomas Lum and Michael A. Weber, “Human Rights in China and U.S. Policy: Issues for the 117th Congress,” CRS (March 31, 2021): 13,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6750>; Sasha Chavkin. “Xinjiang’s Architect of Mass Detention: Zhu Hailun,” *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동화 캠페인’ 성공적이었다고 선언하며, 이 동화 정책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발표 하였다.<sup>21</sup> 이와같은 사실들을 통해, 시진핑 집권 이후 강조된 당의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 또는 탄압 정책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연구의 한계

첫째, 중국 당국의 정보 폐쇄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본 논문은 신장 인권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미국과 호주와 같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신장 내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여 외부로의 정보 흐름을 억제하면서 신장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자료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구의 신장 인권 문제 연구자들은 위성 사진 분석을 하고, 접근이 허용된 구역에 한하여 신장 지역을 현장 답사한다.<sup>23</sup> 신장 문제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수용소 단지에 대해서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성 사진 분석과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sup>24</sup> 둘째, 본 논문은 중국의 신장 정책과 인권 침해 문제를 시진핑 정권 시기, 특히 2010년대 후반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는 본 논문이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신장 문제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중국 당국의 신장 인권 침해가 규모, 강도, 체계성 등 여러 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진핑의 동화 정책 강화 기조에 맞물려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핍박의 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논문은 신장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보여줄 뿐, 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최소화한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 주제가 미중 경쟁의 양상이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은 상반되는 주장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밝히는 규범적 논문이 아닌 경쟁의 규범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규범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는지, 규범적 경쟁의 전략적 의의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논문이다.

## 3. 기존 연구 및 정책

### 3.1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November 24, 2019, <https://www.icij.org/investigations/china-cables/xinjiangs-architect-of-mass-detention-zhu-hailun/>.

<sup>21</sup> Chun Han Wong, “Xi Says China Will Continue Efforts to Assimilate Muslims in Xinjiang,”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6, 2020, <https://www.wsj.com/articles/xi-says-china-will-continue-efforts-to-assimilate-muslims-in-xinjiang-11601133450>.

<sup>22</sup> Chris Buckley and Austin Ramzy, “China Is Erasing Mosques and Precious Shrines in Xinjiang,” *New York Times*, September 25, 2020,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9/25/world/asia/xinjiang-china-religious-site.html>.

<sup>23</sup> Buckley and Ramzy, “China is Erasing.”

<sup>24</sup> Finbarr Bermingham, “UN members call for ‘immediate, meaningful and unfettered access’ to Xinjiang for rights inquiry,” May 13, 2021,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33267/un-members-call-immediate-meaningful-and-unfettered-access>.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한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언어를 사용하는 바이든 정권하에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당분간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이론 중 어떤 이론을 정책의 기본 골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미국 정책입안자들과 주요 엘리트들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미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로 계속 남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된다는 것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검토하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미중 경쟁과 관련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최근의 논쟁에서 비판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론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으로 나뉘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극성(unipolarity)이 끝난 미중 경쟁의 시대에서 미국이 힘의 분배 논리라는 구조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따른 국제 정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sup>25</sup>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고 나서야, 자유주의적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여유를 얻게 되었고, 반대로 단극성이 끝난 지금은 그러한 여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와 페르시아만의 이중 봉쇄 등 자유주의 패권(liberal hegemony) 정책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말한다.<sup>26</sup> 대내외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불만을 낳으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지지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무리한 확장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낳았으며, 대외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고, 미 국민들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주의자들에 맞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낙관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비판주의자들의 주장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군사적이고 급진적인 자유주의 패권주의의 실패를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자유주의적 패권주의는 자유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무력 사용을 기꺼이 고려한다. 미국의 부시의 반 테러 정책 이후, 국제적 비판과 반미주의의 확산,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유주의적 패권주의는 무대의 중심에서 사라졌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가 1990 년대에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월트(Walt)는 자유주의 패권 라이트(liberal hegemony

---

<sup>25</sup> Stephen M. Walt,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Can Realism Explain It? Should Realism Guide It?" *International Relations* 32, no. 1 (March 2018): 5-11. <https://doi.org/10.1177/0047117817753272>.

<sup>26</sup> Stephen M. Walt, "There's No Such Thing as Good Liberal Hegemony," *Foreign Policy*, April 21,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4/21/theres-no-such-thing-as-good-liberal-hegemony/>

lite)를 제시한다. 무리한 확장과 무력 사용은 배제하며,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이다.<sup>27</sup> 아이켄베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질서의 미래도 과도한 자유주의적 확장이나 사회공학적 요소, 급진적인 세계화 정책은 버리고, 다자주의적 협력은 강화하는 것이다<sup>28</sup>

대안적인 자유주의 구상들에 대해 현실주의자인 월트와 자유주의자인 아이켄베리는 다른 평가를 내린다. 월트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인가, 급진적 또는 점진적인가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sup>29</sup> 이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정책은 패권주의와 결합되어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합은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월트의 생각이다.<sup>30</sup>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보편적인 국제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패권주의적인 것이다.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보편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점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공학(social-engineering)”을 수반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불만과 분노를 유발시킨다.<sup>31</sup> 하지만, 사회공학적이라는 비판은 자유주의 증진이 아닌 보호의 정책을 머무른다면 해결 되지도 모른다.<sup>32</sup> 앞서 말했듯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보수적, 실용적 접근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반론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유주의 국제주의와 자유주의 패권주의를 구분하고, 보호 (protection)와 증진(promotion)을 달리 보는 것이다. 낙관주의자들처럼 실용적이고 절제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월트와 아이켄베리처럼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바이든 정권 이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이전보다 강경해진 태도는 바이든 정권하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3.2 정권별 미국의 대중인권정책

본 절에서는 탈냉전 시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인권 정책 동향을 관여의 시대와 전략적 경쟁 시대로 나눠 검토한다. 인권은 카터 행정부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추구하는 ‘이상(ideal)’이 되었다.<sup>33</sup>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의 중심이 된 것은 탈 냉전 시대이다.<sup>34</sup> 미국의 1990 년대 외교 정책은 자유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미국의 엘리트들은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는 미국과

<sup>27</sup> Walt, “There’s No Such Thing.”

<sup>28</sup> G. John Ikenberry, “The Next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99, no.4 (July/August 2020): 140-142,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6-09/next-liberal-order>.

<sup>29</sup> Walt, “There’s No Such Thing.”

<sup>30</sup> Walt, “There’s No Such Thing.”

<sup>31</sup> Walt, “There’s No Such Thing.”

<sup>32</sup> Michael Hirsh, “Why Liberal Internationalism Is Still Indispensable—and Fixable,” *Foreign Policy*, December 5,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12/05/liberal-internationalism-still-indispensable-fixable-john-ikenberry-book-review/>.

<sup>33</sup> Dittmer, L. (2001). Chinese Human Right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 Realist Approach. *The Review of Politics* 63, no.3: 421. doi:10.1017/S0034670500030916.

<sup>34</sup> Dittmer, “Chinese Human Rights,” 421.



다국적 문제를 해결할 때 더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다.<sup>35</sup> 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은 반공산주의 운동과 강대국 경쟁 담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내전이 증가하면서 보호 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와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에 대한 국제적 토론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는 미국의 인권 외교정책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sup>36</sup> 세계는 소말리아, 아이티, 코소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sup>37</sup> 하지만, 이러한 인도주의적 정책기조들은 미국의 대중정책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사회문화적인 자유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이 미국의 대중정책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 미국의 대중정책에서 인권의 지위가 축소되었을까? 이는 지역 안정과 국제 협력의 대상으로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보았기 때문에, 미국의 비즈니스 이익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무역과 투자에서의 기회를 잡기 위해 인권 정책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다.<sup>38</sup>

하지만,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권의 언어가 대중정책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위구르인 인권탄압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경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바이든 정권이 시작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장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면에서는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많은 면에서 연속성을 보이는 반면, 수사적(rhetorical)으로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책적 연속성의 이유는 트럼프 정권하에 대중인권정책이 초당파적(bipartisan)으로 추진되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권은 전 정권과 비교하여 자유주의적 가치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sup>39</sup> 동맹의 중요성을 이러한 가치의 언어와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sup>40</sup>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가치규범적 연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 4. 미중 경쟁과 신장 사례의 규범적 측면

### 4.1 규범 경쟁

규범 경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경쟁하는 규범 담론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제 기구에서 규범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규범 외교 경쟁이다. 본 절에서는 규범 경쟁 담론을 살펴본다. 첫째, 신장의 사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하는 규범 담론을 보여주며, 이 경쟁 담론은

<sup>35</sup> John W. Dietrich, "U.S. Human Rights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1, Issue 2: 275.

<sup>36</sup> Dietrich, "U.S. Human Rights," 274.

<sup>37</sup> Dietrich, "U.S. Human Rights," 275.

<sup>38</sup> Dietrich, "U.S. Human Rights," 281.

<sup>39</sup>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Foreign Affairs* 99, no.2 (March/April 2020): 64-76,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1-23/why-america-must-lead-again>.

<sup>40</sup> Alex Ward, "Joe Biden in victory speech: 'Let this grim era of demonization in America begin to end,'" *Vox*, November 7, 2020, <https://www.vox.com/2020/11/7/21554701/joe-biden-acceptance-speech-2020-election>.

침예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약 백만명의 위구르인들이 중국당국에 의해 세워진 대규모 건물 단지에서 비자발적인 삶을 살았다. 미국과 중국은 그 대규모 건물 단지를 수용소(internment camps) 또는 재교육 시설(re-education centers)로 각자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sup>41</sup> 중국은 위구르 인을 구금하기 위한 구금 시설의 존재에 대한 비난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이 시설을 “극단주의를 억제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 캠프라고 주장한다.<sup>42</sup> 이 서사는 2019 년 “중국 최초의 신장 안보 캠페인 국제 방어” 에도 나타난다.<sup>43</sup> 이 경쟁하는 명칭은 이 두 국가가 기존에 인권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즉, 보편적 인권 규범과 주권주의와 비개입주의 규범이 대항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테러리스트나 분리주의자에 해당되는 위구르인은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비록 비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쟁하는 두 규범은 각각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sup>44</sup>

중국 당국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을 *테러리즘, 분리주의,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봉쇄*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반박 서사들은 서구의 인권 담론에 대항하여 중국이 강조해온 규범인 주권과 비 개입 주의와 연결된다. 중국 측이 신장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이나 증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독립 기관인 위구르 조사위원회(Uyghur Tribunal)는 2021 년 6 월 4 일과 7 일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고, 한 여성 증인 (Mihrigul Tursun)이 중국 당국에 의한 고문을 증언하였다.<sup>45</sup> 이에 맞서 신장 지방정부는 신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반대 증인으로 그녀의 남자 형제 (Akbar Tursun)을 내세웠다.<sup>46</sup> 반대 증인은 그의 여성 형제가 “미국의 영주권(green card)과 돈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sup>47</sup> 또한, 영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위구르 조사위원회의 자금 원천이 테러와 관련이 있는 반 중국 분리주의 단체라고 주장하였고, 중국에 대한 인권 고발이나 비판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48</sup>

<sup>41</sup> Christian Shepherd, “China’s crackdown on the Uighurs,” *Financial Times*, October 19, 2020, <https://www.ft.com/content/6cceb0c1-dc43-48a4-81cc-2debcac0148a>.

<sup>42</sup> James Kynge, “China expanding Xinjiang re-education camps despite assurances, says think-tank,” *Financial Times*, September 24, 2020, <https://www.ft.com/content/b130d040-2fb0-432c-859c-34f0f2697e1c>.

<sup>43</sup> Christian Shepherd, “Fear and oppression in Xinjiang: China’s war on Uighur culture,” *Financial Times*, September 12, 2019, <https://www.ft.com/content/48508182-d426-11e9-8367-807ebd53ab77>.

<sup>44</sup> Christian Shepherd, “China intensifies Xinjiang propaganda push as global backlash grows,” *Financial Times*, April 2, 2021, <https://www.ft.com/content/80a4500d-84b0-4e4e-b208-7cf3e7d80df4>.

<sup>45</sup> huaxia, “Brother of Xinjiang “witness” debunks torture claims,” *Xinhua News*, June 10, 202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6/10/c\\_1310001116.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6/10/c_1310001116.htm)

<sup>46</sup> huaxia, “Brother”

<sup>47</sup> huaxia, “Brother”

<sup>48</sup> huaxia, “Brother”



둘째,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중국의 인권 의제는 중국이 2017 년과 2019 년 사이 주도했던 네 개의 결의안들에 나타난다. 이를 통해 인권 규범 내에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경쟁하는 규범 담론이 존재함을 할 수 있다.<sup>49</sup>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비 개입 원칙 (principles of nonintervention)과 국가 주권 (national sovereignty)을 강조하면서, 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결의안들을 통과시켜 왔다.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잠재우고, 외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다자주의적인 노력인 것이다. 중국은 인권규범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면, 권위주의(authoritarian)적 일당국가인 중국은 국가발전주의와 연결되는 경제적 권리 등을 다른 권리들보다 우선시하였다. 중국은 6 개의 핵심 국제 인권 조약의 당사국이다.<sup>50</sup> 하지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대해서는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다.<sup>51</sup> 종합해보면, 인권은 여러 권리들의 총합인데, 중국은 국제기구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가치에 벗어나지 않는 권리들을 강조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 4.2 규범 경쟁 연합

중국과 미국의 규범 경쟁은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구에서 규범 외교 연합 또는 경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중국은 중국의 인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다른 국가들을 압박해왔다.<sup>52</sup> 예를 들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중국은 37 개국을 결집하여 중국의 신장 정책이 국제 인권을 증진시켰다고 찬양하도록 하였고, 54 개국이 중국의 신장 정책을 “인권 분야의 놀라운 성과(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로 분류하도록 하였다.<sup>53</sup> 뿐만 아니라, 신장 문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39 표의 지지를 얻어 인권 이사회에 재선할 수 있었다.<sup>54</sup> 2020 년 가을 쿠바를 비롯한 유엔의 45 개국은 유엔 총회(the General Debate of the Third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에서 중국이 “대테러와 비급진화 정책 (China’s counter-terrorism and deradicalization measures)이라고 인식하는 신장 정책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55</sup>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 의회와 정책입안자들은 외교적 연합을 강화하고, 인권문제에 대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에 대한

<sup>49</sup> Thomas Lum and Michael A. Weber, “Human Rights in China and U.S. Policy: Issues for the 117th Congress,” CRS (March 31, 2021): 17.

<sup>50</sup> Lum and Weber, “Human Rights,” 18-19.

<sup>51</sup> Lum and Weber, “Human Rights,” 18-19.

<sup>52</sup> Asat Rayhan and Yonah Diamond, “U.S. China Policy Must Confront the Genocide in Xinjiang First,” *Foreign Policy*, January 21,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21/ughur-genocide-china-policy-biden-confront/>.

<sup>53</sup> Rayhan and Diamond, “U.S. China Policy.”

<sup>54</sup> Rayhan and Diamond, “U.S. China Policy.”

<sup>55</sup> huaxia, “Cuba makes joint statement on behalf of 45 countries at UN in support of China’s measures in Xinjiang,” Xinhua News, October 7, 2020,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10/07/c\\_139422664.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10/07/c_139422664.htm)

광범위한 합의를 이뤘다.<sup>56</sup> 따라서, 바이든 정권하에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연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외교정책의 주요 안건이 될 것이다.<sup>57</sup>

둘째, 미국의 신장문제와 관련한 대중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서방 동맹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종의 비공식적 규범 연합이 자유민주주의 서방 동맹국을 주축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단독적으로 시작한 정책들이 이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된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의 주요 문제로는 강제 구금, 강제 노동, 강제 불임 및 낙태가 있다. 이 중 강제노동 문제는 경제제재의 주요 표적이다.<sup>58</sup> 신장에서 공급된 원료를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구르 강제 노동 공개법 Uyghur Forced Labor Disclosure Act”이 통과되었다.<sup>59</sup> 또한, 신장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 지역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라는 법안은 2020년 9월 미국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였다.<sup>60</sup> 같은 달 유엔 총회에서는 프랑스 대통령이 신장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촉구하면서 신장 문제에 대한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61</sup> 영국은 신장의 강제 노동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벌금이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전시켜왔다.<sup>62</sup> 미국, 유럽 연합(EU), 영국, 캐나다는 중국의 위구르인 탄압에 대해 조율된 경제 제재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sup>63</sup> 미국이 먼저 실시한 정책들이 파급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위구르 인권 침해와 관련 있는 중국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미국, 신장 학대에 대한 중국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마그니츠키 Magnitsky” 제재를 제정하였다.<sup>64</sup>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예측된다.

---

<sup>56</sup> Michael J. Green, “Biden Makes His First Bold Move on Asia,” *Foreign Policy*, January 13,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13/kurt-campbell-biden-asia-china-appointment/>.

<sup>57</sup> C. Raja Mohan, “A New Pivot to Asia,” *Foreign Policy*, January 15,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15/biden-china-asia-allies-strategy-pivot/>.

<sup>58</sup> Thomas Lum and Michael A. Weber, “Human Rights in China and U.S. Policy: Issues for the 117th Congress,” *CRS* (March 31, 2021): 28–33.

<sup>59</sup> Owen Churchill, “US House passes bill to force companies to disclose Xinjiang-sourced materials,”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1, 2020, <https://www.scmp.com/news/china/article/3103765/us-house-passes-bill-force-companies-disclose-xianjiang-sourced>.

<sup>60</sup> Isaac Yee and James Griffiths, “China's President Xi says Xinjiang policies ‘completely correct’ amid growing international criticism,” *CNN*, September 28, 2020, <https://edition.cnn.com/2020/09/27/asia/china-xi-jinping-xinjiang-intl-hnk/index.html>.

<sup>61</sup> Isaac Yee and James Griffiths, “China's President Xi.”

<sup>62</sup> Jasmine Cameron-Chileshe, “UK companies face fines over ‘slave labour’ China suppliers,” *Financial Times*, January 13, 2021, <https://www.ft.com/content/0249203b-ce34-406c-ae4d-1bd031ced55b>.

<sup>63</sup> Michael Peel, Christian Shepherd, and Demetri Sevastopulo, “China retaliates after US, EU and UK impose sanctions,” *Financial Times*, March 23, 2021, <https://www.ft.com/content/27871663-cebc-433c-b9bf-4ef28a55d73e>.

<sup>64</sup> Shannon, Tiezzi, “US Enacts Magnitsky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for Xinjiang Abuses,” *The Diplomat*, July 10,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7/us-enacts-magnitsky-sanctions-on-chinese-officials-for-xinjiang-abuses/>.

## 5. 신장 인권문제의 전략적 의의

본 논문은 전략적 의의를 논의하는 데 있어 추측이나 도덕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논의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신장 인권 문제를 둘러싼 규범 경쟁과 규범 연합이 어떤 전략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기능을 이미 수행 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전략적 의의는 가치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연성균형적이다. 첫째, 가치전략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아직 잃지 않았다. 자유주의는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퇴보는 미국의 퇴보를 뜻하게 된다. 미국은 미국이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받고자 할 것이다. 완전무결하게 항상 자유주의적 행보를 밟아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가치추구성이 강한 국가이다. 1990 년대 단극성 시대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았을 때, 이러한 성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한 연구는 미국이 자유주의 이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인도 주의적 개입이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유주의 규범과 도덕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이다.<sup>65</sup>

둘째,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거나, 자유주의적 경제 규범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 보고서를 통해, 신장 공급망을 피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업의 다국적 공급망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을 촉구해왔다.<sup>66</sup> 신장의 사례가 확대 적용되어, 인권 규범에 어긋나는 공급망에 대한 선호도를 줄이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67</sup> 이는 공급망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에도 적용된다. 화웨이의 유럽에 대한 독점은 미국의 근심이었고, 미국은 정보 안보를 명목으로 유럽이 화웨이의 5G 공급을 거절할 것을 이미 요구한 바 있다. 자유주의적,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유럽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리더십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은 중국의 리더십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만든다. 앞서, 규범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국제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즉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국가라는 불명예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나 미래 리더십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미중의 무역 갈등에 있어서도,

<sup>65</sup> Seung-Whan Choi, "What Determines US Humanitarian Interven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0, no. 2 (2013): 121-122. <http://www.jstor.org/stable/26275315>.

<sup>66</sup> Ana Swanson, "U.S. Bans All Cotton and Tomatoes From Xinjiang Region of China," *New York Times*, January 13, 2021, <https://www.nytimes.com/2021/01/13/business/economy/xinjiang-cotton-tomato-ban.html?searchResultPosition=15>.

<sup>67</sup> "Xinjiang Supply Chain Business Advisory,"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June 10, 2021, <https://www.state.gov/xinjiang-supply-chain-business-advisory/>; "Xinjiang Supply Chain Business Advisory,"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June 10, 2021, <https://2017-2021.state.gov/xinjiang-supply-chain-business-advisory/index.html>.

규범적으로 중국을 비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독재 정권이 “지적 재산권 절도, 중국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라는 “독재 국가 특유의 행동”으로 간주되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비판이 미중 경제 문제에 대한 담론의 중심이 되었다.<sup>68</sup> 이러한 비판은 “정상적인 강대국 정치”에서 벗어나는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면서, 중국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넷째, 자유주의나 인권과 같은 가치적 규범은 연합을 수립하고 통합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서 가치 공유는 중요한 요소였다. 냉전시대 미국은 동맹국의 단결을 위해 “공유된 정치적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sup>69</sup> 이를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이 미국이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해, 중국의 “권위적 자본주의”와 “중국 개발 모델”에 반대하여 “민주주의, 개방 경제 및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sup>70</sup>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바탕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동맹 및 연합을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대중 인권외교 비판의 대열에 동맹 및 연합을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QUAD, D10, G7). 규범적 외교 연합이 규범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냉전 기간 동안 미국 동맹국 간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한 “개인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통의 믿음”에 대한 애치슨 전 국무 장관의 강조를 반영하고 있다.<sup>71</sup> 가치 공유 민주주의(value-sharing democracies)”를 강조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연합은 잠재적으로 미국에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sup>72</sup> 마지막으로, 규범적 외교나 연합이 연성균형(soft-balancing)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은 상호의존도가 높은 오늘날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방해하고 침식하는 간접 방해 피로유발의 전술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6. 맺는 말

탈 냉전 시대를 상징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 정책은 전략적 경쟁으로 대체되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과거와 달리, 최근 몇 년간 중국의

---

<sup>68</sup> Matthew Kroenig, “The Power Delusion,” *Foreign Policy*, November 11,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11/11/china-united-states-democracy-ideology-competition-rivalry-great-powers-power-delusion/>.

<sup>69</sup> Hal Brands and Zack Cooper, “U.S.-Chinese Rivalry Is a Battle Over Values,” *Foreign Affairs*, March 16,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3-16/us-china-rivalry-battle-over-values>.

<sup>70</sup> Kevin Rudd, “Short of War,” *Foreign Affairs* 100, no.2 (March/April 2021): 7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2-05/kevin-rudd-usa-chinese-confrontation-short-of-war>.

<sup>71</sup> Hal Brands and Zack Cooper, “U.S.-Chinese Rivalry Is a Battle Over Values,” *Foreign Affairs*, March 16,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3-16/us-china-rivalry-battle-over-values>.

<sup>72</sup> Michael J. Mazarr, Jonathan Blake, Abigail Casey, Tim McDonald, Stephanie Pezard, and Michael Spirtas, *Understanding the Emerging Era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8: 17,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726.html](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726.html).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재를 가하고, 국제적인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미중의 새로운 관계 패턴은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발전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주시해야 하며, 미중관계에서의 그 의미를 아직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중 경쟁을 살펴볼 때,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것 또한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 참고문헌

1. “Human Right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last modified April 11, 2019, <https://plato.stanford.edu/entries/rights-human/>.
2.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accessed 10 June, 2021,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3. “Xinjiang Supply Chain Business Advisory,”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June 10, 2021, <https://www.state.gov/xinjiang-supply-chain-business-advisory/>; “Xinjiang Supply Chain Business Advisory,” U.S. Department of State, accessed June 10, 2021, <https://2017-2021.state.gov/xinjiang-supply-chain-business-advisory/index.html>.
4. huaxia, “Cuba makes joint statement on behalf of 45 countries at UN in support of China’s measures in Xinjiang,” *Xinhua News*, October 7, 2020,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10/07/c\\_139422664.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10/07/c_139422664.htm)
5. huaxia, “Brother of Xinjiang “witness” debunks torture claims,” *Xinhua News*, June 10, 202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6/10/c\\_1310001116.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6/10/c_1310001116.htm)
6. Kenneth Roth, “Biden Can’t Make Washington a Beacon for Human Rights by Returning to Business as Usual,” *Foreign Policy*, January 13,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13/biden-human-rights-washington-trump/>.
7. Alex Ward, “Joe Biden in victory speech: “Let this grim era of demonization in America begin to end,” *Vox*, November 7, 2020, <https://www.vox.com/2020/11/7/21554701/joe-biden-acceptance-speech-2020-election>.
8. Ana Swanson, “U.S. Bans All Cotton and Tomatoes From Xinjiang Region of China,” *New York Times*, January 13, 2021, <https://www.nytimes.com/2021/01/13/business/economy/xinjiang-cotton-tomato-ban.html?searchResultPosition=15>.

9. Ann Florini,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 no. 3 (1996): 363-389.
10. Asat Rayhan and Yonah Diamond, "U.S. China Policy Must Confront the Genocide in Xinjiang First," *Foreign Policy*, January 21,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21/uighur-genocide-china-policy-biden-confront/>.
11. C. Raja Mohan. "A New Pivot to Asia," *Foreign Policy*, January 15,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15/biden-china-asia-allies-strategy-pivot/>.
12. Charlie Campbell, "In His Speech to Congress, Joe Biden Sets Out a Vision for 'Competition, Not Conflict' With China," *Time*, April 29, 2021, <https://time.com/5995109/biden-congress-speech-china/>.
13. Chris Buckley and Austin Ramzy, "China Is Erasing Mosques and Precious Shrines in Xinjiang," *New York Times*, September 25, 2020,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9/25/world/asia/xinjiang-china-religious-site.html>.
14. Christian Shepherd, "China intensifies Xinjiang propaganda push as global backlash grows," *Financial Times*, April 2, 2021, <https://www.ft.com/content/80a4500d-84b0-4e4e-b208-7cf3e7d80df4>.
15. Christian Shepherd, "China's crackdown on the Uighurs," *Financial Times*, October 19, 2020, <https://www.ft.com/content/6cceb0c1-dc43-48a4-81cc-2debcac0148a>.
16. Christian Shepherd, "Fear and oppression in Xinjiang: China's war on Uighur culture," *Financial Times*, September 12, 2019, <https://www.ft.com/content/48508182-d426-11e9-8367-807ebd53ab77>.
17. Chun Han Wong, "Xi Says China Will Continue Efforts to Assimilate Muslims in Xinjiang,"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6, 2020, <https://www.wsj.com/articles/xi-says-china-will-continue-efforts-to-assimilate-muslims-in-xinjiang-11601133450>.
18. Dittmer, L. (2001). Chinese Human Right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 Realist Approach. *The Review of Politics* 63, no.3: 421-460. doi:10.1017/S0034670500030916. p. 421
19. Finbarr Bermingham, "UN members call for 'immediate, meaningful and unfettered access' to Xinjiang for rights inquiry," May 13, 2021,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33267/un-members-call-immediate-meaningful-and-unfettered-access>.



20. G. John Ikenberry, "The Next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99, no.4 (July/August 2020): 133-142,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6-09/next-liberal-order>.
21. Hal Brands and Zack Cooper, "U.S.-Chinese Rivalry Is a Battle Over Values," *Foreign Affairs*, March 16,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3-16/us-china-rivalry-battle-over-values>.
22. Isaac Yee and James Griffiths, "China's President Xi says Xinjiang policies 'completely correct' amid growing international criticism," *CNN*, September 28, 2020, <https://edition.cnn.com/2020/09/27/asia/china-xi-jinping-xinjiang-intl-hnk/index.html>.
23. James Kynge, "China expanding Xinjiang re-education camps despite assurances, says think-tank," *Financial Times*, September 24, 2020, <https://www.ft.com/content/b130d040-2fb0-432c-859c-34f0f2697e1c>.
24. James Leibold and Adrian Zenz, "Beijing's Eyes and Ears Grow Sharper in Xinjiang," *Foreign Affairs*, December 23, 2016,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6-12-23/beijings-eyes-and-ears-grow-sharper-xinjiang>.
25. Jasmine Cameron-Chileshe, "UK companies face fines over 'slave labour' China suppliers," *Financial Times*, January 13, 2021, <https://www.ft.com/content/0249203b-ce34-406c-ae4d-1bd031ced55b>.
26. John W. Dietrich, "U.S. Human Rights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1, Issue 2: 269-294.
27.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Foreign Affairs* 99, no.2 (March/April 2020): 64-76,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1-23/why-america-must-lead-again>.
28. Kevin Rudd, "Short of War," *Foreign Affairs* 100, no.2 (March/April 2021): 58-72,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2-05/kevin-rudd-usa-chinese-confrontation-short-of-war>.
29. Kurt Campbel and Jake Sullivan,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Foreign Affairs* 98, no.5 (September/October 2019): 96-11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competition-with-china-without-catastrophe>.
30. Lea David, "Human Rights as an Ideology? Obstacles and Benefits." *Critical Sociology* 46, no. 1 (January 2020): 37-50, <https://doi.org/10.1177/0896920518798015>.

31.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 no. 4 (1998): 887-917, <http://www.jstor.org/stable/2601361>.
32. Matthew Kroenig, "The Power Delusion," *Foreign Policy*, November 11,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11/11/china-united-states-democracy-ideology-competition-rivalry-great-powers-power-delusion/>.
33. Michael Hirsh, "Why Liberal Internationalism Is Still Indispensable—and Fixable," *Foreign Policy*, December 5,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12/05/liberal-internationalism-still-indispensable-fixable-john-ikenberry-book-review/>.
34. Michael J. Green, "Biden Makes His First Bold Move on Asia," *Foreign Policy*, January 13,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13/kurt-campbell-biden-asia-china-appointment/>.
35. Michael J. Mazarr, Jonathan Blake, Abigail Casey, Tim McDonald, Stephanie Pezard, and Michael Spirtas, *Understanding the Emerging Era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8: 1-46,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726.html](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726.html).
36. Michael Peel, Christian Shepherd, and Demetri Sevastopulo, "China retaliates after US, EU and UK impose sanctions," *Financial Times*, March 23, 2021, <https://www.ft.com/content/27871663-cebc-433c-b9bf-4ef28a55d73e>.
37. Owen Churchill, "US House passes bill to force companies to disclose Xinjiang-sourced materials,"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1, 2020, <https://www.scmp.com/news/china/article/3103765/us-house-passes-bill-force-companies-disclose-xianjiang-sourced>.
38. Robbie Gramer and Amy Mackinson, "Pompeo Declares China's Crackdown on Uighurs 'Genocide'," *Foreign policy*, January 19,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1/19/pompeo-declares-china-crackdown-uighurs-genocide-biden-beijing-xinjiang-crimes-against-humanity-trump-final-foreign-policy-move/>.
39. Sasha Chavkin. "Xinjiang's Architect of Mass Detention: Zhu Hailun," *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November 24, 2019, <https://www.icij.org/investigations/china-cables/xinjiangs-architect-of-mass-detention-zhu-hailun/>.

40. Seung-Whan Choi, "What Determines US Humanitarian Interven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0, no. 2 (2013): 121-139. <http://www.jstor.org/stable/26275315>.
41. Shannon, Tiezzi, "US Enacts Magnitsky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for Xinjiang Abuses," *The Diplomat*, July 10,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7/us-enacts-magnitsky-sanctions-on-chinese-officials-for-xinjiang-abuses/>.
42. Shepherd, Christian. 2020. "China's crackdown on the Uighurs." *Financial Times*, October 19, 2020. <https://www.ft.com/content/6cceb0c1-dc43-48a4-81cc-2debcac0148a>.
43. Stephen M. Walt, "There's No Such Thing as Good Liberal Hegemony," *Foreign Policy*, April 21,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4/21/theres-no-such-thing-as-good-liberal-hegemony/>
44. Stephen M. Walt,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Can Realism Explain It? Should Realism Guide It?" *International Relations* 32, no. 1 (March 2018): 3-22. <https://doi.org/10.1177/0047117817753272>.
45. Vincent Ni, "EU efforts to ratify China investment deal 'suspended' after sanctions," *The Guardian*, May 4, 202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y/04/eu-suspends-ratification-of-china-investment-deal-after-sanctions>.
46. Zehra Arat and F. Kabasakal, "Human Rights Ideology and Dimensions of Power: A Radical Approach to the State, Property, and Discrimination," *Human Rights Quarterly* 30, no. 4 (2008): 906-932, <http://www.jstor.org/stable/20486716>.